

강성열 교수의 성경을 여는 열쇠, 창세기

10강 야곱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수직적인 관계/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삭 이야기: 그의 삶(특히 결혼)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야곱 이야기: 소유와 사회적인 위치를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과 경쟁 등 수평적인 관계(야곱과 에서, 야곱과 라반, 레아와 라헬)/ 싸움과 갈등 및 고통 속에서의 약속 성취.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아들 약속. 야곱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

1.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야곱(28장)

1) 이삭은 리브가의 제안을 수용하고서, 야곱을 축복한다(‘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자손과 땅/ 28:1-5). 야곱의 하란 행(行)을 본 순박한 에서는 자신의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한다(6-9절).

2)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거리=460km 정도) 가던 야곱은 루스의 허허벌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10-11절). 형의 보복을 피하여 정든 가정을 떠나야 하는 참담한 모습/ 깊은 번뇌와 갈등/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여행길의 정신적인 고독감. 도움과 위로가 가장 필요하던 때에 주어진 위로와 희망의 말씀. 정직하지 못한 일로 인해 집에서 반강제로 쫓겨나는 신세였으나 마치 탕자와도 같은 그를 찾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참조, 롬 5:20). 참으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비교, 16장의 하갈).

3) 사닥다리 환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의 반복(자손과 땅; 12-14절)/ 새로운 약속(“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리라”=15절). 야곱의 첫 하나님 체험: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이던 그가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 세계로 눈을 떠가는 첫 경험. 잠에서 깬 그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는데도 몰랐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한다(하나님의 집, 하늘로 들어가는 문=17절/ 출 3:1-6; 사 6:1-5). 그는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엘이라 칭한 다음에 하나님께 조건이 달린 서원을 한다(18-22절).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타산적인 반응, 절대적인 신뢰의 부족.

2. 야곱의 결혼과 출산(29:1-30:24)

1) 야곱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도착(한 우물)/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남/ 라반의 평안함(shalom)을 물음/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 라헬을 만남(1-8절)/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임/ 야곱이 자기 정체를 밝힘/ 라반과의 감격적인 만남(13-14절). 1달 후 라반이 집안일을 거저 하게 할 수는 없

다면서 보수에 관한 야곱의 의견을 묻자, 야곱은 7년을 일할 테니 7년 후 라헬(언니보다 총기가 있어 보임)과 결혼시켜 달라고 요청(15-18절). 혼인 지참금(출 22:16-17; 호 3:2)=노동력.

2) 라반의 승락/ 야곱의 7년 봉사/ 혼인 잔치/ 레아와의 결합/ 실바=레아의 시녀(19-24절). 야곱의 항변/ 라반의 변명/ 새로운 조건: '결혼 기간 7일(삿 14:12)을 마치면 라헬도 주겠다. 그 대신에 7년을 더 일해야 한다'/ 라헬과의 결혼/ 빌하=라헬의 시녀/ 야곱의 7년 봉사(25-30절).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라헬 얻는 데 14년 허비)를 겪으면서 이삭과 에서를 속였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함(레아의 라헬 위장=야곱의 에서 위장). 자신의 얼룩진 과거에 양심이 찢린 야곱은 라반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이다(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벌 또는 야곱의 사람됨을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

3) 야곱과 라반 사이의 갈등, 레아와 라헬 사이의 갈등, 아버지에 대한 라헬의 반감(드라빔 도적질, 31:19) 등이 시작된다. 현실적으로는 라헬이 레아를 제치고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신다. 아들들의 이름: 르우벤(보라, 아들이다), 시므온(들으심), 레위(연합), 유다(찬송)/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레아의 심경을 반영(31-35절). 마지막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

4) 라헬의 불평/ 화를 내는 야곱(하나님 하신 일)/ 빌하를 통한 출산: 단(억울함을 푸심), 납달리(경쟁함)/ 실바를 통한 출산: 갓(복됨), 아셀(행복)=자신감의 표현(30:1-13). 레아는 르우벤의 합환채(습歡菜, 성기능 촉진시키는 일종의 최음제)를 라헬에게 팔고서 잇사갈(값), 스불론(거함), 디나 등을 낳음(14-20절). 라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요셉(더함)을 낳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오른손의 아들)을 낳음(35:18). 딸들 중에 유일하게 디나가 언급된 것은 후에 발생할 사건과 그녀가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34장).

3. 부자가 된 야곱(30:25-43)

1) 라헬의 요셉 출산/ 완전한 가정의 형성/ 가장(家長)으로서의 책임 의식/ 독립된 재산은 없는 상태. 어머니 리브가의 연락도 없이 14년(31:41)이라는 세월이 흘러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도 간절했을 것이다. 에서의 증오심도 많이 누그러졌을 것이다. 야곱은 자신의 귀향 요청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자기가 외삼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강조한다(25-26절).

2) 야곱이 자기 집에서 차지하는 비중(27절=하나님의 복/ 값싼 노동력을 통한 재산 증식)을 잘 알고 있던 라반은 당황한 나머지 그가 원하는 품삯을 줄 테니 계속 머무르라고 제안(파격적, 28절). 이에 야곱은 자신의 수고와 외삼촌 재산의 증식을 관련시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라고 단정 지으면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한다('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나는 외삼촌을 위해 이토록 수고하여 외삼촌을 부자가 되게 했는데, 나는 이게 뭐니까?; 30절).

3) 야곱의 귀향 요청=라반의 푸대접/ 자기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다는 생각/ 귀향을 구실로 품삯을 확보하려는 계산. 궁지에 몰린 라반이 해결책을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은 아롱진(얼룩진) 양, 점이 있는 양, 검은 양/ 점이 있는 염소, 아롱진 염소 등을 품삯으로 요청한다(31-33절). 라반의 승락(잘 태어나지 않는 종류이므로; 양이나 염소는 대체적으로 희거나 검은 단색 계통이 우세)/ 신속하게 야곱이 말한 종류를 자기 아들들에게 줌/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 야곱과의 사이에 사흘 길이 뜨게 함(34-36절).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면서 자기 소유를 만들어 가야 했다.

4) 버들나무, 살구나무, 신평나무(플라타너스)/ 푸른 가지들의 껍질을 벗긴 후(하얗게 됨) 그것을 개천의 물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 놓고 양떼가 물을 먹을 때마다 그 가지들을 보게 함. 물을 먹으러 온 양떼들은 거기서 교미를 하곤 했고, 그 결과 한결같이 야곱이 품삯으로 정한 종류들이 태어남(37-39절). 양치기들 사이에 유행하던 방법(양들의 버릇에 대한 관찰과 고대의 주술적인 생각). 튼튼한 암컷이 교미할 때만 그 가지들을 사용하여 야곱은 튼튼한 양들만을 소유한 부자가 됨(40-43절).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야곱의 재산 증식(다분히 미신적인 방법을 복으로 변형시킴). 야곱도 나중에 아내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31:5-13). 약한 자를 도우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4. 야곱과 라반의 언약(31장)

1)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부자가 됨,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 야곱이 라반 집안의 재산을 다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는 비난, 예전 같지 않은 라반의 안색과 태도(1-2절). 야곱의 위기 상황을 아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귀향 명령을 내리신다(3절). 라헬과 레아를 가축 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낸 야곱은 라반의 바꾸어진 태도(야곱을 향한 적대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신의 수고와 노력, 라반의 품삯 바꿔치기(10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축 떼의 증가, '벤엘 하나님'의 귀향 명령 등에 관해 말한다(4-13절).

2) 라헬과 레아의 공감, 아버지 라반에 대한 반감, 귀향 독려(14-16절),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사흘) 도망하려는 계획. 양털 깎는 일은 온 가족(유목민)이 며칠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는 큰 잔치 마당이었다(삼하 13:23-27). 이처럼 중요한 잔치에 야곱 일가가 초청받지 못했다는 것은 라반이 그들을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라헬과 레아의 말을 입증한다(15절). 라헬은 집을 떠나면서 드라빔(Teraphim=사람 모양을 본떠 만든 수호신상으로 상속 상징, 31:30)을 훔쳤고, 야곱은 이것을 모른 채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도망하였다(17-21절).

3) 라반의 야곱 도피 사실 인지(認知), 7일간의 추격. 가장 중요한 추격 이유는 드라빔에 있었다. 계산 빠른 야곱이 드라빔을 가지고서 상속을 주장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보복 의사도 있었다(29절). 라반의 심사를 아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라반에게 경고하신다(22-24절). 라반의 야곱 책망, 드라빔 도적질 문책, 야곱의 결백함 주장(32절=라헬의 죽음, 35:16-20), 라반의 소득 없는 수색(33-35절; 드라빔의 무기력함, 라헬의 부정함 감염, 레 15:19-30), 야곱의 분노와

향변(36-40절),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41절).

4) 라반은 야곱의 상속권 주장(드라빔)을 예방하기 위해 다시는 그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돌 무더기를 증거로 삼아 언약을 맺는다(45-48절). '증거의 무더기'=여갈사하두다(아람어), 갈르엣(히브리어)/ 미스바=망대 또는 감시 초소(하나님이 야곱을 감시해 달라는 요구, 49-50절). 하나님 앞에서의 상호 불가침 협정(51-53절). 야곱의 제사, 친족들과의 식사, 이튿날 출발(54-55절). 이로써 야곱과 라반 사이의 갈등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완전히 해결된다(54-55절).

5. 야곱에서 이스라엘로(32장)

1) 마하나임('두 진지'=two camps)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남(1-2절; 베엘의 사닥다리 환상). 하나님의 군대가 두려움에 처해 있던 야곱을 보호하실 것임을 의미(에서의 400명 군대). 야곱은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보냄/ 형에게 자신의 지난 세월을 알리고 동시에 은혜 베풀어 줄 것을 간청(3-5절; '나의 주인님' / '당신의 종'). 에서의 400명 소식에 접한 야곱은 그가 본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본떠 자기 일행을 두 떼로 나눈다. 최소한 한 떼는 살릴 수 있다는 생각(6-8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 하나님의 귀향 명령, 그 동안에 베푸신 은총, 무자격자임의 고백, 에서에게서 구해달라는 간구, 하나님의 자손 약속(9-13절).

2) 기도를 마친 후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내어 미리 보냄(총 550마리). 에서가 영문을 묻거든 그것들이 그에게 주는 선물이며 자신은 뒤에 따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하게 함(16-20절). 여러 차례 선물을 받으면 감정이 누그러질 것이라는 판단. 야곱 일행은 밤중에 일어나 요단강의 동쪽 지류들 중의 하나인 압복 강을 건넌고 야곱은 혼자 남았다. 자신의 삶을 그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정리하려는 결심/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과거와 진지하게 맞서기 위하여 홀로 하나님과 마주 대하고 싶었을 것이다.

3) 혼자 남은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천사=호 12:3-4)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영덩이뼈; 힘의 근원)이 부서진다(21-25절). 이는 그의 철저한 자기부정(自己否定)과 같은 차원(지난날의 삶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졌음을 의미). 역설적이게도 야곱은 부서지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 날이 샐 무렵에 놓아주기를 청하는 천사에게 야곱은 축복을 조건으로 내건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뀜(하나님이 겨루시다, 하나님과 겨루다; 25-29절).

4) 하나님은 속임수와 교활함으로 가득한 야곱의 삶(허벅지 관절)을 부수심으로써 그를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한편으로(과거로부터의 철저한 단절) 그에게 새 이름을 주어 희망찬 미래의 삶을 약속해 주셨다. 희망의 미래=야곱이 브니엘(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오름(30-31절). 이스라엘 자손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은 것은 그들도 야곱처럼 잘못된 과거를 철저하게 부정함으로써 매번 새롭게 희망의 미래를 갈망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6. 에서와 야곱의 화해(33장)

1) 압복 나루를 건너 고향을 향하던 야곱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보고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앞세우고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 따라오게 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을 맞되, 마치 신하들이 왕을 향해 절을 하듯이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1-3절). 에서는 두 팔을 벌려 그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면서 그와 함께 울었다.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로 하여금 에서에게 절하게 했다(4-7절).

2) 에서가 야곱이 보낸 가축 떼에 대해 묻자 야곱은 그것을 '미느하'(선물, 32:13, 18, 20, 21; 33:10)로, 그리고 '브라카'(blessing='복의 근원', 12:2)로 부른다. 이는 야곱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서 형에게서 빼앗은 복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장자권인 에서에게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야곱의 심정은 이처럼 절박했다.

3) 에서는 한사코 그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의 일부를 선물로 드리는 것이니 받아 달라고 간청했다(8-11절). 야곱은 이제까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요 원수 같이 여겨졌을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압복 강 변화). 참조: 험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마 25:34-40).

4)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본 에서는 그의 선물을 받고서(용서 의미), 자기가 앞장서서 그의 가족과 소유를 인도하겠다고 자청하나, 야곱은 형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 아이들과 가축 떼의 새끼들이 약해서 서둘러 갈 수 없다는 핑계로 그 제안을 거절한다(12-14절). 에서는 남쪽인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압복 강 북쪽의 숙곳으로 향했으며, 숙곳으로부터 30마일 떨어진 가나안 땅의 세겜 성에 도착했다.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친 그는 그곳의 받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에 매입하였으며(16-19절),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칭하였다. 참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시내 산 언약 갱신, 수 24장), 요셉의 시신이 묻힌 곳(수 24:32), 르호보암의 협상 장소(왕상 12:1),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 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던 야곱의 우물가(요 4:6).

7. 세겜 족속과의 불화(34장)

1) 야곱 일행이 세겜에 머물 때 레아 소생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여 아버지 하몰에게 결혼을 간청하고(출 22:16-17; 신 22:28-29),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디나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1-5절). 하몰이 야곱에게로 오는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특히 레아의 아들들)은 디나 소식을 듣고서 들에서 돌아와 하몰과 직접 협상하고자 한다.

2) 야곱은 아들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에 관해 의논할 법도 했으나 그렇지 않으며(라헬의 딸이 아니므로?), 협상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하물은 세겜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기들과 통혼(通婚)할 것과 평화롭게 섞여 살자는 정치적인 제안을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야곱 일가족의 정착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세겜 역시 어떠한 결혼 예물도 준비하겠노라고 장담한다(6-12절). 그러한 제안에는 디나 사건으로 분노하는 야곱 일가족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야곱의 아들들(특히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은 치밀한 보복 계획을 세우고서는 할례를 통혼의 조건으로 내건다(13-17절). 본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로서 행하는 것이었으나(17:9-14) 여기서는 보복을 위한 속임수로 사용된다(성스러운 할례의 오용, 誤用). 하물과 세겜은 성문에 모인 성읍 사람들에게 통혼을 선포하면서 할례 받을 것을 명한다(18-22절). 야곱 일가족의 재산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는 말에 성읍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는다(23-24절).

4) 할례 후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성읍으로 쳐들어가 성읍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디나를 데려온다. 이 일로 인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49:5-6). 나머지 아들들은 시므온과 레위의 보복이 성공을 거두자 세겜 성읍을 크게 약탈한다(25-29절).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안 야곱은 두 아들을 불러 야단친다. 할례 오용이나 무자비한 살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였다(30절).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가 창녀처럼 여겨진 것이 옳으냐고 항변한다(31절).

8.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35-36장)

1) 하나님은 곤경에 처해 있던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벰엘로 갈 것이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곳(벰엘)으로 옛 모습 그대로 갈 수 없어 모든 식구들에게 각종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서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명함과 동시에, 그 이유가 벰엘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임을 밝힌다. 야곱은 그들이 가져온 각종 귀고리(일종의 부적)들과 이방 신상들(드라빔 포함)을 땅에 묻었다(35:1-4절).

2) 하나님의 보호, 벰엘 도착, 단을 쌓음(엘-벰엘='벰엘의 하나님'), 유모 드보라의 죽음(5-8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9-12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재확인, 자손 번성의 복, 땅의 약속), 서원 이행(14-15절). 11절의 '허리'는 히브리어로 '할라차임'으로서 위골된 허벅지 관절과 연결된 곳이다. 이것은 위골되어 부서진 곳으로부터 위대한 희망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한다(절망과 희망의 변증법).

3) 벰엘에서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중에 라헬은 벤-야민('오른손의 아들'/ 벤-오니='내 슬픔의 아들')을 낳고서 죽는다(16-20절).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비롯되는 슬픔(렘 31:15), 헤롯 대왕의 대학살에서 비롯되는 어머니들의 슬픔(마 2:17-18)과 비교. 르우벤은 악행(서모 빌하, 21-22절)으로 인해 장자권을 잃는다. 요셉이 장자권을 갖는다(대상 5:1-2). 야곱이 낳은 12

아들들의 명단(23-26절). 레아(6명):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 라헬(2명): 요셉,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빌하(2명): 단,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2명): 갓, 아셀. 야곱의 고향 도착, 이삭의 죽음(180세, 27-29절).

4) 에서의 아들들(1-14절), 족장들(15-19절), 세일 원주민(호리 족속)의 자손들과 족장들(20-30절), 에돔의 왕들(31-39절), 에서에게서 나온 여러 종족들(40-43절). 이들 명단은 씨족 사회(후손들의 목록)가 부족 사회(족장들의 목록)를 거쳐 왕정 국가(왕들의 목록)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에돔 족속은 비록 나중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망할 때 바벨론 군대에게 협조하기는 했지만(오바댜 1:10-14), 그래도 야곱과 피를 나눈 형제였기 때문에 신명기는 에돔 사람과 다투거나 그들을 미워하지는 말라고 명한다(신 2:4-5; 23:8).

